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27호 1판 (음력 2월 27일)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광주, 도시공원 90% 이상 지킨다

광주시가 중앙공원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대상 공원의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민관거버넌스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시에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 공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2단계 추진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공원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市,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개발 면적 최소화 및 공공성 강화키로

전문가·시민단체 "1단계 평가·시 재정투입 공표 후 2단계 추진" 주장

내일 민관거버넌스 회의서 결정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2단계 사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시기 문제와 관련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 말 공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13일로 예정된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광주시에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 공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2단계 추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심사 기준 수정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1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중 약 90%인 702만7000㎡를 녹지 및 공원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7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업지역 중에서 최대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녹지 및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등 협상, 도시공원(계획)위원회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소한 27개월 정도 소요돼 4월 안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과 관련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공공성 확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7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원별 시행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냉해 입은 나주 배농가 가보니 ▶6면
그림 편지-박문종의 남도 ▶18면
류현진 60이닝 무실점 첫 승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현 중3 2022 대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점수 확인 후 대학 지원

현재 중 3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11월 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정시 구분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7면〉

김영삼 정부 때인 1997학년도에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 후 25년 만의 변화다. 수능 점수 위주로 뽑는 전형과 학생부 위주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간의 비율도 조정돼 수능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 전과목을 원점수 대신 9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제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1일 2020학년도 입시개편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2022학년도 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8월까지는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주요 사항은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학종비율 축소)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제 도입 등) 등 3가지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선발시기다. 교육부는 대입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발시기와 관련, 제1안으로 수시·정시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능을 현행 11월 셋째 주에서 11월 1일로 약 2주 앞당기고, 11월 20일께 성적을 발표한 후 11월말부터 대학들이 원서를 접수받아 2월까지 합격자를 가리는 일정이다.

교육부의 1안대로 결정되면, 수시와 정시모집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단일 모집으로 25년 만의 큰 변화다. 이 경우 수험생 1인당 지원 횟수는 기존 최대 9회(수시 6회+정시 3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2안은 현행처럼 수시와 정시모집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인재 10만명 육성"
신정훈 "신 해양시대 선도"
장만채 "청년이 웃는 전남"

민주 전남지사 경선 D-1…김영록·신정훈·장만채 후보 분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영록·신정훈·장만채 후보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경선 승리=당선'으로 인식되면서 정책·공약을 다듬었다. 〈인터뷰 3면〉

신정훈·장만채·김영록 경선 후보들은 11일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과 공약,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역현안 사업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 해양관광 활성화, 위급상황 대처, 국가균형발전 등이 이유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신 후보는 민간·군공항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국제공항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후보지를 공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굳이 민주당 입당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인권·평화'의 김대중 정신과 자신의 정치적 소신·철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통·스킨십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는 "오랜 공직생활 탓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많이 변하고 있다.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포옹도 하고 리액션도 크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8개월만에 내려놓은 신 후보는 "아쉽지만 전남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결단했다"며 "문대통령과 함께 전남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절호의 기회이자 역사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